

2025년 추계학술발표대회 : 일반부문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미술관에서의 통제방식의 공간화

-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서울관 비교를 중심으로 -

Spatialization of Control Mechanisms in Museums in Response to societal change

- A Comparative Study of the Deoksugung Branch and Seoul Branch of the MMCA -

○이 민 주* 황 희 준**
Lee, Min-Ju Whang, Hee-Joon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how museums reflect control mechanisms in response to societal changes. Drawing on Michel Foucault's theory of the disciplinary society and Han Byung-Chul's theory of the fatigue society, this study connects the spatial structures of museums to these theories in order to interpret the spatialization of control mechanisms, and applies this to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patial structures of the Deoksugung branch and the Seoul branch of the MMCA. The analysis reveals that Deoksugung branch exemplifi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ciplinary society, whereas the Seoul branch reflects those of the fatigue society. This comparison demonstrates that museums function as social apparatuses that spatially reflect and embody control mechanisms shaped by societal contexts.

키워드 : 미술관, 공간구조, 미셸 푸코, 한병철, 통제방식의 공간화

Keywords : Museums, Spatial Structure, Michel Foucault, Han Byung-Chul, Spatialization of Control Mechanisms

1. 서론

미술관¹⁾ 공간구조의 변화는 미술관에 대한 사회문화적 속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oi, 1996). 이러한 변화는 예술과 대중, 지식에 대한 사회의 인식과 통제방식이 공간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미술관 관련 연구에서는 공간구조에 의해 지식의 공간화가 이루어지며, 관람자가 그 안에서 움직임으로써 그 구조가 습득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Choi & Lim, 2022).

다시 말해, 미술관은 단순히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라 공간구조를 통해 지식과 질서, 의미를 구성하고 전달하는 복합적인 장치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와 한병철은 각각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피로사회』에서 현대사회의 권력과 통제방식에 대해 이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권력과 통제방식의 변화를 사회적 변화로 이해하고, 푸코와 한병철의 이론을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서울관의 공간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술관 공간에 어떻게 사회적 변화가 반영되고, 통제방식이 공간화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푸코의 규율사회

고전주의 시대와 근대의 경계였던 18세기 말은 산업혁명과 프랑스혁명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매우 큰 시기였다. 이 시기에는 인구 증가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했다. 더불어 계몽주의의 확산은 사회를 더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강화하였고, 기존의 전통적 권위는 점차 해체되며 규율이 일반적인 방식이 되었다.²⁾

푸코는 새로운 권력 형태를 ‘규율 권력’, 이러한 사회를 ‘규율사회’라고 하였다.³⁾ 규율 권력은 이전의 폭력적이고 가시적인 권력과 달리 신체, 행동, 시간 그리고 공간을 세밀하게 통제하는 은밀한 방식의 권력이며, 감옥, 학교, 병원 같은 제도적 공간을 통해 작동하고 개개인을 규율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이다.

푸코에 따르면 규율 권력은 자체적으로 닫혀 있는 장소의 특정화와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분할하는 공간을 요구한다. 기능을 위해 엄격하게 공간을 구분 지으며, 규율에서 기본단위는 서열이다. “규율은 개체, 자리, 서열을 조직화함으로써 복합적 공간을, 즉 건축적이면서 동시에 기능적이고 위계질서를 갖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⁴⁾

* 한양대 대학원 석사과정

**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Hanyang University School of Architecture, hjwhang@hanyang.ac.kr)

1) 본 연구에서는 박물관(Museum)까지 지칭한다.

2) 미셸 푸코. (1994). 감시와 처벌(오생근 옮김). 번역개정2판, 나남, p. 255.

3) 장용순. (2024). 라캉, 들뢰즈, 바디우와 함께하는 도시의 정신 분석 1권 과잉 도시. 이학사, p. 54.

3.2 한병철의 성과사회, 피로사회

철학자 한병철은 규율사회와 대조되는 개념으로 성과사회, 피로사회를 제시하며 21세기의 사회는 성과사회로 변모했다고 지적한다.⁵⁾

규율사회에서는 외부의 법으로 통제되는 반면 피로사회에서는 내재화된 법에 따라 통제된다. 피로사회에서는 성과주의에 사로잡힌 개인이 자기 자신을 혹사한다. 금지 위주의 부정 사회인 규율사회와 달리 피로사회는 그냥 하라는 긍정 사회다. 이러한 피로사회는 외적으로는 금지와 억압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금지와 억압이 내재화되어 자신을 스스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대다.⁶⁾

이를 정리하면, 18세기 말에는 당시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규율이 중심이 된 ‘규율사회’가 형성되었고, 이후 과잉생산, 과잉가동, 과잉 커뮤니케이션에 의한 긍정성의 과잉⁷⁾으로 인한 사회의 변화는 자율성과 성과 중심의 사고를 강화하며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로 변화시켰다.

3. 미술관 공간구조의 유형

3.1 시대별 미술관 공간구조의 변화

미술관은 시대에 따라서 기능과 사회적 개념을 달리해 진화해 왔으며 Park & Lee(2006), Heo & Lee(2025)는 국내의 박물관 역할에 변화가 있었고, 이에 대응하여 공간적 변화의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시대에 따른 미술관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표 1. 시대별 미술관 공간구조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연구자	시대 구분	분석 방법	주요 공간적 변화
최윤경 (1996)	제1세대: 근대 초 제2세대: 20C 초반 제3세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면 분석	중심성 확보 → 중심성의 확대 / 부정 → 다양한 유형 출현 (4가지)
문정목 & 임채진 (2004)	1990년 이전 1990년 이후	공간 구문론 (연결도 · 명료도)	1990년 이후 연결도 ↑, 명료도 ↓ → 자유로운 동선 / 구조 복잡화
박종구 & 이성훈 (2006)	제1세대: 근대 제2세대: 후기 모더니즘 제3세대: 다원화 시기	공간 구문론 (통합도 · 명료도)	대공간: 중심성 유지 전시공간: 중심에서 멀어짐, 명료도 감소

<표1>를 통해 미술관의 공간구조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공간구조가 복잡해지며 관람자에게 동선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공간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시대마다 사회가 미술관에 요구하는 역할의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변화는 미술관의 공간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미술관은 특정 시대의 사회적 가치와 구조를 반영하는 공간임을 시사한다.

3.2 미술관 공간구조의 유형

미술관의 공간구조는 전시 방식, 동선, 관람자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Choi, 1993). <표 2>에 미술관의 공간구조를 정리하였다. 공간구조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공간 유형 연구도 참고하였다. 또한 연구에서 평면구성과 전시공간구성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평면구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장에서는 미술관의 공간구조를 푸코와 한병철의 이론과 연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2. 미술관 공간구조 유형 선행연구

연구자	분류 기준	특징 및 주요 내용
최윤경 (1996)	평면구성 전시공간구성	평면구성: 중심성 / 중심성 부정 전시공간구성: 연속성 / 연속성 부정
아리즈카 & 니시테 (2005)	동선 체계	통과형 / 리턴형
이성훈 (2008)	평면구성 전시공간구성 동선 체계	평면구성: 집중형(근본형, 중심홀형, 중정형, 성장형), 분산형(분리형, 분동형), 개방형, 보편형 전시공간구성: 홀 · 복도형, 연속실형, 개방형, 복합형 동선: 선택 동선 / 강제 동선
백용운 (2008)	평면구성	외부부화적(둘러쌈형, 적층형) / 내부이화적(중합형, 분할형, 단차형, 변성형)
한규영 & 김화정 (2008)	동선 체계	규제동선 / 자유동선
김여운 (2016)	전시공간구성	단속 공간구조 / 연속 공간구조 / 독립 개실구조

4. 이론과 공간의 매핑: 분석틀

4.1 푸코 규율사회와 미술관

근대미술관은 예술작품을 시대, 국가별로 분류하고, 정해진 자리에 질서 있게 배열하였다. 이는 지식을 분류하고 위계화하는 방식으로 관람자는 미리 설정된 동선과 방식에 따라 감상하도록 유도된다. 이때 미술관은 시선과 움직임 통제를 하며 규율을 생산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초기 미술관 설계안인 Durand의 미술관 계획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비교적 독립적인 개실로 구성된 공간은 명확한 분류와 전시 전달의 효과를 고려한 결과였다(Baek, 2008). Kim(2016)은 연대기적 전시로 순서가 고정된 방식은 관람자에게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한 억압적 구조를 형성한다고 설명한다.

4) 푸코. op. cit., p. 270-274.

5) 한병철. (2012). 피로사회(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p. 23.

6) 장용순. op. cit., p.53-64.

7) 한병철. op. cit., p. 18.

이처럼 미술관 공간의 분절과 위계화는 관람자의 동선을 제어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감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고 서열화된 공간, 이동 제한, 행동의 통제라는 규율 권력 작동 원리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술관의 공간구조는 <표3>과 같이 지식과 권력이 결합하여 규율사회를 구축·강화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표 3. 규율사회 이론에 따른 미술관 공간구조 해석

구성 요소	공간구조	규율사회적 해석
평면구성	중심성 기반의 위계적 평면	공간의 위계 형성 → 권력 구조의 시각화
전시공간 구성	분절된 개실	기능 분리 및 위계 형성 → 순서 있는 감상 유도, 통제 강화
	연속적 전시실	일방적 관람 흐름 유도 → 동선 규제
동선 체계	강제 동선	관람 흐름 규정, 선택권 제한

4.2 한병철 피로사회와 미술관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미술관은 점점 더 복잡한 구조를 갖게 되었으며, 관람자가 동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미술관이 등장하였다. 이는 규율을 강제하던 과거의 미술관과는 달리 자율성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방식의 통제가 작동하고 있다.

겉으로는 명확한 경계나 동선 제어 장치가 없는 전시 공간은 관람자에게 자유로운 동선을 통해 자율적인 경험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이나, 관람자는 타인의 SNS 후기, 큐레이션 콘텐츠, 추천 루트 등을 기준 삼아 자기 점열을 하게 된다. 이는 미술관이라는 공간에서 피로사회의 내면화된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미술관의 위계가 없는 평면, 선택할 수 있는 전시 공간구성과 자유 동선은 자율성을 표방하면서도 관람자에게 감상 성과를 책임지게 만드는 내면화된 권력 장치다. 감상의 결과를 외부와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하고 중국에는 피로감까지 느끼는 구조는 선택과 자유의 형식을 띠면서도 자기 착취를 강화하여 피로사회를 구성·지속시키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4>와 같다.

표 4. 피로사회 이론에 따른 미술관 공간구조 해석

구성 요소	공간구조	피로사회적 해석
평면구성	개방형, 중심홀형 (중심성 부정)	위계가 존재하지 않고 동선 자율성을 강조 →
전시공간 구성	홀-복도형, 개방형	선택의 부담을 유도 →
	비연속적 전시실	성자가 자기 책임으로 전환 → 피로 유발
동선 체계	자유 동선	

5. 사례분석

5.1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그림18>은 1938년 개관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미술관이다. 덕수궁관의 평면구성은 중앙의 정방형 홀을 중심으로 양쪽에 두 개의 전시 공간이

대칭적으로 배치된 3분할 구조를 따른다(Kim, 2015). 이 중심홀은 관람자의 움직임의 중심에 위치하며 일종의 상징적 공간 역할을 하고 (Choi, 1996), 강한 위계의 중심성을 가져 (Oh, Park, & Kim, 2011) 공간 전체에 위계를 부여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 2층의 네 개의 전시 공간은 개실로 분절되어 끝의 공간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개실구조는 질서 있고 집중적인 감상을 유도하며, 이동 경로를 제한한다. 결과적으로 덕수궁관 관람자는 통제된 동선 안에서 전시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규율 권력의 작동 방식인 공간의 분할과 감시, 이동의 제한과 행동의 통제가 미술관에서 구현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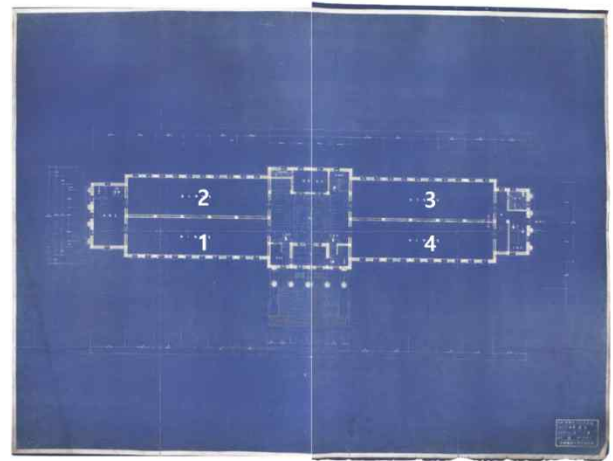


그림 1. 덕수궁관 2층 평면도 (저자 숫자 삽입)

종합하면, 덕수궁관은 중심성과 위계에 기반한 평면과 분절·연속적인 전시공간, 강제 동선 등을 통해 관람자를 통제하는 근대미술관의 구조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푸코의 규율과 권력의 작동 방식과 연결되며, 미술관이 사회의 통제방식을 공간화하고 강화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나타낸다.

5.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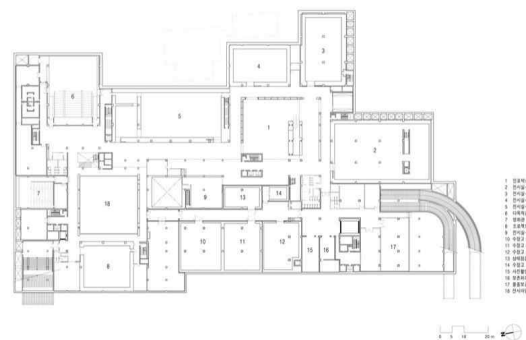


그림 2.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지하 1층 평면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그림29>은 2013년 개관하여 공

8) 국립문화재연구원, 덕수궁 미술관 설계도, 2014.

9)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https://www.aum.re.kr/Bits/BuildingDoc.aspx?mm=4&ss=1&num=5116>.

간구조와 관람자의 경험 측면에서 덕수궁관과는 다른 형태를 보여준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물은 미술관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다양한 동선의 선택지를 열어두어 높은 자율성을 제공한다. 이는 전통적인 미술관의 중심성과 위계성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건물 진입 이후에도 공간은 명확한 관람 순서를 제공하지 않는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갈 것인지, 다른 공간을 탐색할지는 관람자에게 맡겨져 있다. 지하 1층 인포박스를 둘러싼 불투명한 유리가 시선을 차단하여 홀과 복도형 구조를 형성해 처음 방문하는 이에게는 내부 구조와 방향성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관람자는 매 순간 자신의 선택으로 공감 경험을 구성해야 한다. 이 자율성은 감상 행위가 타인의 성과와 비교되는 대상으로 전환되며, 내면화된 자기 통제와 착취를 유발한다. 이러한 공간구조는 한병철의 피로사회 특징과 맞닿아 있다.

따라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개방형 평면, 비연속적 전시실, 자유 동선은 자기 성과에 대한 자기 점검과 비교를 유발하는 피로사회의 공간화로 해석할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미술관의 공간구조를 푸코의 규율사회, 한병철의 피로사회 이론과 연결 짓고, 이를 바탕으로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서울관의 공간구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미술관이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의 통제방식을 공간화하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근대미술관에서 관람자는 미리 설정된 동선과 방식에 따라 감상하도록 유도되어 미술관은 규율을 생산하는 장치로 기능하게 된다. 따라서 미술관의 중심성 기반 위계적 평면, 폐쇄적 공간구성, 분절된 개실 구조, 연속적 전시실 구성, 강제 동선 등의 공간구조는 규율사회의 통제방식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으로는 관람자에게 자율적인 경험을 부여하는 듯 보이는 중심성 부정 평면, 홀-복도형, 자유 동선 등의 공간구조는 관람자를 감상 행위에 대한 자기 점검과 검열에 놓이게 하는 내면화된 시스템을 작동시키며 이는 피로사회의 통제방식을 구성하고 지속시키는 구조로 해석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과 서울관을 분석한 결과, 덕수궁관은 규율사회의 통제방식이 공간화된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서울관은 피로사회의 통제방식이 공간화된 사례로 볼 수 있었다. 두 미술관은 단순히 건축적 스타일이나 동선 설계의 차이를 넘어서, 근대와 현대에서 통제방식이 어떻게 공간화되어 작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1. Arizuka, R., & Nishide, K. (2005). Kenchiku Keikaku [Architectural Planning]. In Y. Nagasawa (Ed.), Ichigaya Shuppansha.
2. Back, Y. (2008). A Study on the [Space Type] of Exhibition Space in Art Museum. Journal of the

-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4(8), 141-149.
3. Choi, Y. (1993). Cultural Implications of the Spatial Structure of Museum Layou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9(10), 81-87.
4. Choi, Y. (1996). A Chronological Typology of Museum Layout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2(6), 29-37.
5. Choi, Y., & Lim, H. (2022). A Study on Comparative Analysis of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in National Museum of Contemporary Art.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Culture Architecture, (80), 3-12.
6. Han, K., & Kim, H. (2008). A Comparative Study on the Movement in the Art Museums. journal of the regional association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0(3), 83-90.
7. Heo, J., & Lee, J. (2025). Spatial Change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as the Museum's Role Extensio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1(5), 113-124.
8. Kim, J. (2015). A Study on Classicism in Drawings of Deoksugung Palace Art Museum.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24(6), 83-92.
9. Moon, J., & Lim, C. (2004). A Study of the Universalism and the Pluralism in the circulation system of Europe's Museum Architecture from 18th century to now.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 Design, 20(4), 32-40.
10. Oh, J., Park, H., & Kim, S. (2011). A Study on the Analyzing Space Configuration and Character of Exhibition Area in Neo-Classical Museum.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20(3), 225-232.
11. Park, C., & Lee, S. (2006). A Study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the Each Generation's Museum Space by Space Syntax Analysis - Focused on Connection Form Changes of the Major Space and Exhibition Space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15(5), 247-254.
12.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https://www.aurum.re.kr/Bits/BuildingDoc.aspx?mm=4&ss=1&num=5116>.
13. 국립문화재연구원, 덕수궁 미술관 설계도, 2014.
14. 미셸 푸코. (1994). 감시와 처벌(오생근 옮김). 번역개정2판, 나남, 255-274.
15. 한병철. (2012). 피로사회(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3.
16. 장용순. (2024). 라캉, 들뢰즈, 바디우와 함께하는 도시의 정신분석 1.과잉도시. 이학사, 53-64.
17. 김여운. (2016). 공공미술관 전시공간 배치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18. 이성훈. (2008). 공간구문론적 해석에 의한 미술관 공간구성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